

**한국 실내건축계의 비평적 상황과 과제모색

A Visionary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 Problems found in Criticism in Interior Architecture of Korea

서수경* / Suh, Swoo-Kyung

Abstract

In general, the definition of criticism is making a constructive analysis between good & evil, right & wrong, and beauty & ugliness. Just as the literature, art, music, and architecture welcomes productive criticism in order for further advancement in each professional field, constructive criticism in the field of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ctivated since it would be as useful as in other fields to upgrade the level of design quality. If the constructive criticism were to be taken properly in the benefit of further advancement in particular design, then the criticism must have a proper criteria in order to examine and review the design work objectively. However, as the design symbolizes cultural interpretation and reaction towards better creativity, we expect design to be mutated in many different directions. As the limit of interior architecture shares limitless possibilities in today's society, it seems that we need to set up a guidelines of design criticism in order to support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rea of interior architecture.

키워드 : 비평, 디자인, 실내건축, 평가모델

1. 서론

한국의 실내건축분야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했고, 건축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더불어 실내건축의 영역도 점차 다원화되었다.¹⁾

실내건축(Interior Architecture)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의 소수의 건축설계 회사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몇몇의 발전적이고 진부적인 소수의 디자인 대학에서 실내건축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이에게 새로운 전문분야로서 대단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²⁾

한국의 실내 건축계의 경우 1979년 한국실내디자이너협회(현재 한국실내건축가협회로 개칭-초대회장: 조성렬)가 창립되어 1982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으며, 1989년에는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DI)³⁾에 가입되어 이사국(차기회장: 민영백)으로서 활발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KIID)가 1992년에 창립되면서 학술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국(초대회장: 오인욱)으로

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의 실내건축 분야가 대외적으로 전문영역으로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오기 보다는 그저 단편적인 '느낌'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품에 대한 본질적 가치판단, 창조적 예술성, 시대적 부합이나 비전(vision) 등의 비평적 내용에는 크게 못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내건축가들의 작업본질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실정이고, 비평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정립이 되지 못한 채 그 의미나 영역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⁴⁾

창작분야에서의 비평(Criticism)이란 사물의 선악(good & evil), 시비(right & wrong) 그리고 미추(beauty & ugliness)등을 평가하여 논하는 작업이다. 문학, 미술, 음악, 건축분야와 더불어 이제는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에 관여하는 활동인 디자인분야에 있어서도 비평의 필요성은 절대 적이며, 그 비평역시 디자인된 작품이나 제품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p.11.

2)Kurtich&Eakin, Interior Architecture, p.3.

3)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 & Designers.

4)박홍, 앞의 책, p.11.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임강사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01년도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비평의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통해 한국 실내 건축계의 상황을 분석하고 실내건축 작품에 대한 비평의 틀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디자인 작업의 가이드 라인이 되게 하는데 목적과 의의를 갖는 동시에 이 방면의 점진적 연구가 디자인계의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비평의 의의와 가치를 2장에서 논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본론으로 한국의 비평적 상황과 과제, 그리고, 비평의 틀을 모색하였다. 시대적 상황은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한정하였다.

2. 비평의 의의와 문화적 가치

2.1. 비평의 의의와 필요성

비평이란 완성된 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판별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음악·미술·건축 등의 분야에서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이 정착되어 왔듯이 실내건축에서도 작품의 해석, 예술적 가치, 급변해 가는 국제적 경향, 디자인 감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평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술 분야의 비평도 초기에는 다각도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주로 관전평(觀展評)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시대의 미술적 현상이 단순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서 하나의 해석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등장할 때, 그것은 당연히 미술비평이나 미술사적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야 한다'⁵⁾는 글을 통해 당시의 평론가가 문제제기를 한 글에서 느낄 수 있겠다.

건축작품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기능(function), 구조(structure), 그리고 미(aesthetics)를 들 수 있다. 즉, 작품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만족하는 건축인가, 그 기능을 만족한 구조의 해결인가, 그리고 같은 값이면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형태적 구성(비례, 통일성과 변화감, 조화와 대비, 균형감, 리듬 등)이나 색채와 재료의 질감(texture) 등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하게 마련이다.

실내건축에 있어서의 비평 역시 미술이나 건축분야와 유사한데 작품이나 제품을 해석하고 예술적 가치나 실용적 가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어로 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비평을 위한 틀은 뒤에서 제안되는데 여기서의 틀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도식화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을 설정하여 분석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실내건축의 특성에 맞게 하나의 학문적 장르로서 발전되길 기대한다. 마치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사

건의 최종판결을 내린다는지,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종합검진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과도 같이 실내건축분야의 비평도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실내건축 비평의 문화적 가치

한국의 현대건축은 서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우리 전통건축의 계승과 서양식 모더니즘 건축의 수용 사이에 끊임없이 방황해 왔다.⁶⁾

1970년대부터 전문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실내건축이 예술의 대표적인 분야임을 인정할 때 실내건축비평 역시 예술비평의 정의를 공유한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이 인간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부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임에 있어서 심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타 예술비평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실내건축의 비평에는 심미성 외에 기능성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가치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내건축행위에 있어서 기능성이라 함은 과학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심미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혹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개념체계에 따라 관정의 기준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능성에 대한 판단은 역사성이나 주관성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편타당성의 논리에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의미로서 실내건축비평은 실내건축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실내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모든 주장과 논설이 비평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평가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이고 서술적인 언급들을 모두 비평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보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만을 비평이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내건축비평의 영역을 보다 전문적인 부분으로 축소하여 보편적인 실내건축이론에 기초를 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의 서술로 국한한다면, 진정한 비평에는 '객관적으로 비평가라고 인정되는 사람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사색과 통찰을 통하여 그의 사상과 인식이 표현된 결과물'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판단으로서의 비평의 의의와 이와 연관된 이론들은 4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한국 실내건축계의 상황과 사례분석

한국의 실내건축비평은 대중은 물론이고 실내디자이너들 간에도 그들의 작업 본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 확고

5) 박래경/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 p.17.

6)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p.8.

한 이론 정립이 되지 못한 채 그 의미나 영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따르고 있다.⁷⁾ 따라서 3장에서는 한국실내건축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비평적 모색을 통해 실내건축에 있어서의 비평의 방법론을 얻고자 한다.

3.1. 발전과정

한국의 실내건축의 시대적 상황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개항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범위로 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창립된 1980년대 이후를 범위로 한다.

(1) 1980년대

1979년 KOSID가 창립되고, 1989년 IFI에 가입되어 활발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양대 올림픽('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디자인계는 호황을 이루게 되고, 외국상사들의 한국 진출로 인한 오피스 빌딩,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건축 그리고 문화관련시설들이 성행한 때이다.

또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2-3층에 불과했던 실내건축 관련 잡지들이 부정기 간행물을 포함하여 30여종에 이르면서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며, 1988년에 KOSID 주최로 열린 "아시아 스페이스 포럼"(Asian Space Forum)서울 국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나라 실내건축계의 국제화시대를 제감하는 시기가 되었다.⁸⁾

이 시기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은데, 전반적인 작품경향은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를 타기 시작하면서 혼성의 작품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전통의 표현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⁹⁾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상업건축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호텔과 은행용도가 많았다.

(2) 1990년대 이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1990년대는 세계의 흐름 속에 왕성한 발전을 보게 된다. 특히 이 시기는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전공하지 않고 디자인이나 회화를 전공한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괄목할 만한 시기이다. 따라서 실내건축의 표현도 일정한 규범(規範)에서 벗어난 신선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퓨전디자인이나 미니멀디자인¹⁰⁾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특기할 사항은 실내건축기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실내디자인학회(KIID) 창립을 통해 실내건축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한 것도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KOSID와 KIID의 협동으로 '실내건축기사' 자격증 제도와 '실내건축기능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표 1> 1980년대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연도별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1980	민영백	City Bank 서울지사, Chase Manhattan Bank
	손석진	늘봄 다방
	오의조	쉐라톤워커히 호텔의 스카이 레스토랑
	조성렬	파인 힐 본점
1981	조성렬	힐사이드, 바덴바덴 한국 홍보관
	손석진	레스토랑 합지박
	문신규	빠리바 Bank, 너와집
	오의경	반도 유스호텔
1982	이승룡	한일관 본점
	김원석	팔레스 호텔 대연회장
	조성렬	빛의 광장
	문신규	유리시안 Bank, 삼희 투자금융
1983	이범호	준 피자코너
	원대연	호텔 롯데 헬스센터, 레스토랑 J
	이창근	타워호텔 한식관
	이병호	반도투자금융
1984	김원석	청남대 영빈관, 교통회관 국제회의장
	장충섭	쉐라톤 워커히 Food Center
	원대연	레스토랑 곶, 광명 스카�파크 레스토랑
	이병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985	박 홍	신원 베이커리
	문신규	한국 업존
	이다미 준	PARAO-1, CLOSED-1
	민영백	민 인터내셔널 사옥
1986	김원석	63빌딩 Fountain Plaza와 지하 Arcade
	이원표	제주 서귀포 KAL Hotel
	원대연	현대백화점 식당가와 디스코 클럽 아나벨스
	이창근	ABC Sports Garden
1987	민영백	Atrium
	오의조	신라호텔 한식당 서라벌
	오기수	바탕골
	이창근	한진 대강당
1988	조찬규	카페 디자인 시티
	김철+이경렬	현대전자 Showroom
	손석진	HENDI 사옥
	원대연	레스토랑 스카이락
1989	이병호	'86 아시안 게임 Press Center
	조성렬	독립기념관 전시실계
	조용수	K-Office
	박 홍	무심재
1990	개오망	Cafe 도시선언
	김경무	라마다 르네상스 Grand Ballroom
	후지다+미라마	Hyatt JJ 마호니즈
	원대연	호텔 롯데 신관
1991	손석진	레스토랑 린텐바움과 만보장 Cafe

7)박홍, 앞의 책, p.11.

8)박홍, 앞의 책, pp.207~208.

9)박홍, 앞의 책, p.211.

10)Minimal이란 극도의 절제미를 추구하여 무미건조한 공간을 말하며, 대신 각종 오브제를 동원하여 무미건조한 것을 cover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계속

연도별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1988	Petre+Bohn	여의도 Kunst Disco
	찰스코버+김병현	현대백화점
	김정섭+염용환	Cafe 나무와 벽돌
	조성렬	레스토랑 연경
	김재현	Cafe Modern Times
	장홍섭	63빌딩의 Members' Club, 중화식당, 불림장
	박 홍	롯데월드 보석점 Ever Rich
	이원표	쉐라톤 워커히 Casino Bar
	이창근	부산 Hyatt 수영장, Intercontinental Hotel 객실
	한도룡	연암 Science Hall
1989	김재열	보르네오가구 상설전시장
	김 철	포함 Shopping Center
	신구택	한식당 거북성
	이연숙	이연숙 주택 및 실내연구소
	허준구	황피부과 의원
	이다미 준	이다미 준 연구소
	원대연	롯데월드 테마파크와 민속관
	김경우	롯데월드 어드벤처
	장홍섭	조선비치 Lobby와 객실

1992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창립되어 학술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지난 2000년 5월에는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sia Interior Design Institutes Association)을 창립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적으로 한국 실내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으며, 국제적인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주요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소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1990년대의 작품경향은 모더니즘의 표현과 탈근대적 표현, 전통적 한국성의 표현에다 1997년도에 낙인 IMF의 영향으로 미니멀리즘 현상 등이 나타났다.¹¹⁾

모더니즘 작품들은 내부기능에 따라 실용적이고 경제적, 기능적 측면을 추구하며, 장식과 표현의 억제를 나타내고 있다.

탈근대적 작품들은 다원적 공간연출에 절충적 표현과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소적(조각적) 기법을 혼합하여 콜라주(collage) 기법으로 오브제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네오 모던(Neo Modern)적 작품들은 평면구성상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새롭고 개성적인 연출을 시도하여 실험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 한국성을 모색한 작품들은 전통의 해석을 통해 현대화된 전통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전통문양의 창호와 가구 및 공예품을 이용한 전통공간 연출을 모색하고 있다.

3.2. 비평적 상황

11)박홍, 앞의 책, p.219.

1980년대 이후 실내건축이 양적인 발전을 해 왔지만, 21세기가 시작된 현재, 보다 질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의 문제점을 모색할 때이다. 즉, 우리 작가들의 존재와 작품들이 세계적인 작품들 속에서 특화 되려면, 과거의 정신적인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사는 우리로서 과감한 문화창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¹²⁾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에 대한 작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확고한 이론 정립을 위한 비평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 1990년대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연도별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1991	이준용	스타지오네 엘칸토	
	김부곤+이준희	하나은행	
	신홍경	한식당 마루	
	전병귀	그린골프 플라자	
	김철호	이건창호 전시장	
	문기중	Cafe in 씨에네	
	최정화	스퀘어 디 소르센터	
	개오망	월드 팜스	
	인토피아	미스터 루팡	
	A4 파트너스	Bar Ollo	
	윤영배	진양 Imis	
	김 춘	Silvy	
	장홍섭	조선호텔 팝 레스토랑	
	이근운	커피테리아 크리스마스	
1992	공덕호+장세양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이동초	유원 디자인 사옥	
	오의조	서울 트레이드 클럽	
	이만희	패션안경점 스트라우스	
	김개천	월드 어퍼럴	
	계선산업	레스토랑 셰라톤	
	유정한	레스토랑 핑키 802	
	최정화	보타첼리 청담점	
	1993	이만희	용수산
		장성태	하나 일식당
손주희+이종준		동방태그린 증권	
김정인		헌법재판소 대·소 심판정	
김대현		EXPO '93 한국 IBM관	
김종관		강원 한의원	
1994	전시형+이만희	타임 명동점	
	이범재	레스토랑 마로니에	
	김영기	소르센터 명동점	
	이상황	테니스 볼링센터	
	공덕호	예담 교회	
	김철호	중식당 난향	
	전병귀	한식당 기원	
	전시형	MOOK 명동몰	
	태두아카데미어	일식당 이수카	
	이준용	대한투자신탁 사옥	
1995	장홍섭	웨스턴조선호텔 서울	
	김부곤	대우 주택문화관 Human Space	
	미영범	이영희 한국이상 청담본점	
	이동초+박지영	경방본사 Showroom	
	유정한	Cafe 한미당	
	미영범	Cafe 테라조	
	오의조	POSCO Center 전문식당가	
1996	박 홍	한국발레하우스	
	이창근	현대금융본사	
	장경일	Swiss Grand	

12)홍가이 평론집, 현대미술·문화비평, p.210.

<표 2> 계속

연도별	작가별	주요 프로젝트
1996	최시영	샤브센
	박성철	Cafe Kunst Be
	전시형	카페와 레스토랑 Lacena
	디자인세계	O'Kims'
	SPACE	피자 피아띠
1997	카텍디자인	베니건스
	김경숙	금호 베스트 홈
	전시형	Cafe 천년동안도
	최정화	쉐라톤워커힐 댄스클럽 제스티
	박 승	산청 직업훈련원
	이영근	한국가스공사 본사
	이종복	한국통신 본사홍보관
	전시형	Cafe V-Exchange
1998	박 홍	Cafe 도시공간
	유정환	Cafe 감
	전시형	레스토랑 누벨꾸진 궁
	장기태	레스토랑 Xian
	김개천	동국대 대각전 법당
	김명길	최가철물점
	이창노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식당가
	옴니 디자인	Cafe 플라ستيك
	최시영	Sketch
	인테리어디자인	그랜드 하바나
1999	두우디아아디자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Buon Posto
	박성철	우리 그릇 러
	어번웍스	클럽 Tatro
	최시영	Cafe Artinus
	유정환	신준 성형외과, 광수생각
	마영범	Cafe Barba, 닌젠
	이지현	레스토랑 Mr. Loong
	김경숙	유리투자 Consulting
	김영옥	Tube
	개오망	부산 크라운 호텔
	엔케이 디자인	레스토랑 MEME
	조국현	Internet Music Shop TMC
	2000	박성철
최정화		궁
개오망		Bar Hugh
김개천		문사수법회
유정환		LCD Pro Hair
박성철		두손21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 사람의 관련 학자들과 작가 또는 관련잡지 기자들에 의해서 실내건축 비평이 이루어지고, 관련 잡지를 통해 작품에 대한 평이 소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 실내건축의 발전과정을 비추어 볼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의 장르로서 발전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1980년대는 일반적으로 한국 실내건축역사에서 황성기에 속하는바 양대 올림픽과 시장개방에 따른 다원적인 열린사회에서 디자인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기였다. 계속되는 외국 기업체의 한국 진출로 인한 사무공간에 대한 설계와 인테리어전문

잡지와 그 관련잡지들의 창간으로 대중화 도미노 현상이 생겼다. 특히 이 시기에 창간된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플러스, 월간 인테리어, 실내장식 등 새로운 저널들은 각기 성격을 달리 하는 편집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공간지나 꾸밈지 등의 대표적인 디자인잡지와 차별화 된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되었다. 이들 잡지의 발간으로 새로운 차원의 비평문화가 자리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비평의 질적, 양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¹³⁾

특히 실내건축의 본격적인 비평이 자리잡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비평의 사례를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990년대 이후 실내건축 작품에 대한 비평사례

대상작품/작가/출처	비평내용 요약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념과 상관, 압구정 코시드인테리어스 1995/10 (비평:이경돈)	-도시환경과 실내디자이너들의 관계성에 대한 재해석 -디자인의도의 지나침으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조언 -문화를 이끌어야하는 디자이너들의 도시환경 및 도시공간을 배려하는 자세 재조명 -상업공간과 주변의 맥락정리의 필요성요구
Rotunda -민영백 작 코시드인테리어스 1996/01 (비평:손찬)	-공간배치와 작가의 공간구성의도를 재인식하는 비평 -정신적인 공간과 목적 공간에 대한 내용 -전문가적 기질에 대한 비평가의 견해
이영희 한국의삼청담동점 -마영범 작 코시드인테리어스, 1996/01 (비평:김주연)	-서구의 모던함과 지극히 한국적인 전통성의 어우러짐에 대한 작가의 배려격려 -단순미를 극대화시킨 공간구성에 대한 찬사 -일본의 작품의 표절시비에 대한 반론 -재료와 채광 등 실내요소를 통해 표현된 작가의 실내건축의 방향성에 대한비평
20세기 한국 인테리어디자인에 관한 비평적 고찰 월간 인테리어, 1999/12 (비평:김문덕)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서구디자인의 무분별한 모방에 대한 우려와 기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더니즘 영향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의견 -기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형태와 재료의 변화와 흐름을 통해 본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전통디자인의 연계성에 대한 의견 표출 -디자인교육과 환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다양화되거나 소신있는 디자인이 되지 못한 점의 아쉬움 표현
20세기 한국 인테리어디자인에 관한 비평적 고찰 월간 인테리어, 1999/12 (비평:김주원)	-세기말에 나타나는 단발성과 다발성에 대한 고찰을 시대별로 주어진 상황과 인테리어의 역사와의 관계성 열거 -기성 작가들의 작품성의 변화추세와 더불어 사업체 전략과 작품의 관계 및 작가자신의 배경과 작품의 관계논의 -각 작가들의 세심한 디자인 특성을 밝혀냄으로서 작품을 보다 자세히 인식할 수 있고 가깝게 느끼도록 함 -정해진 틀을 과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디자이너들의 탄생과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갖고 업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 열거
생성의 동세 MOONHAUS -박성철 작 월간 인테리어 2000/02 (비평:김주연)	-작가의 연륜이 쌓일수록 발전되어 가는 경향을 뒷 배경으로 본 작품의 특성파악 -지역적 단순주의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 개념을 통해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감각표현이 뛰어난 작품을 이론적으로 설명 -작가의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통한 실마리를 찾는 작가에 대한 찬사와 격려 -내부 공간들의 구성을 열거하면서 작가의 주관성에 대한 평가 포함 -재료와 형태 등을 통해 과거의 잔상이 현재의 디자인에 배어 나오는 설명을 통해 작가의 새로운 도전을 긍정적으로 판단

13)김봉렬, 한국건축 비평계의 흐름, 건축, 1990, p.9.

<표 3> 계속

대상작품/작가/출처	비평내용 요약
<p>“공” 그 비워짐 -최정화 작 월간 인테리어 2000/06 (비평:김주연)</p>	<p>-미니멀리즘과 공간구성에 대한 작가의 방법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작업들과의 변화 표현. -공간전체를 관전하면서 각 공간별의 내재된 특성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평함. -비워짐이라는 기본철학이 공간에 어떠한 질서를 갖고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평 -물성보다는 감성으로 표현된 작가의 의도를 “공”사상과 더불어 설명하면서 디자이너의 철학과 디자인의 깊이의 변화에 대한 인식표출</p>
<p>실내건축의 범주적 가장자리와 무한성 일식주점-아케버노 -김영옥 작 공간지 2000/07 (비평:김승귀)</p>	<p>-건축과 실내건축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이들의 고충과 견해를 들어내며, 실내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실내공간 끌어내기”작업에 대한 평 -건축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작가의 실내공간 만들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특히 자연에서 가져온 소재들을 사용한 공간풀이에 대한 설명 -작가의 연출성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대부분의 대중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디자인 의도에 대해 안타까움 표현</p>
<p>설치·설치하기· 설치되기 패션 쇼Showcase -마영범 작 월간 인테리어 2000/12 (비평:김승귀)</p>	<p>-실내건축 비평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비평의 어려움에 대한 표현 -작가의 공간을 설치예술개념을 통해 바라보면서 부위별 요소별로 작가의 의도를 찾아가 -항상 한가지 개념과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는 작가의 노력에 찬사</p>

3.3. 비평의 사례 분석 · 종합

<표 3>의 비평사례를 분석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건축과 관련된 공간구성의 유기적 관계는 물론 주변환경과의 조화에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공간디자인에 관련한 종합적인 비평이 되고 있다.
 - 2) 단순한 실내건축보다는 자연채광의 도입문제, 자연 소재를 이용한 재료 등 세밀하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 3) 작가의 디자인의도를 평하기 위해 그간의 작품이나 작가의 캐리어를 통하여 작가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마치 미술작품 평론에서 흔히 작가의 배경과 작품성향, 그리고 그 작가의 변화되어온 작품을 관련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 4) 한국적 배려나 한국의 정체성을 기대하고, 무조건적인 서구 디자인에 대한 개성 부재에 대한 비판의 우려가 높다.
 - 5)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항상 변화하는 작가의 모색, 과감한 시도나 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6) 2000년도의 단순미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 위해 ‘비어진공간의 철학’이 현대의 작품에 다소 진부하게 부각되고 있다.
 - 7) 비평가들의 주관적인 ‘느낌’과 관전형식의 공간 읽기가 대부분인 동시에 비판적인 견해 표현은 다소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비평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 실내건축계의 비평적 방향 모색

비평적 방향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비평의 틀은 다음과 같다.

4.1. 문화적 가치판단으로서의 비평

가치평가로서의 비평의 주요기능은 미적 가치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는 작가의 “미적 의도”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하고, 반대로 편견과 혼돈을 제거해 줌으로서 미적 감각을 개발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나 작가를 성장시켜 주는 선도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비평은 항상 그의 해석이나 가치 판단이 미적 경험 속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독보적인 존재를 발굴해 주어야 하며, 대중과 작품이 접했을 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비평가는 작품의 좋은 점과 시대적 관점을 대중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1) 객관성의 존재: 비평을 위한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가치 평가를 선명하게 해석하고, 미에 대한 가치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나 모든 대중이 인정하는 실내건축공간이 평가되어야 권위있는 비평이 될 것이다.

2) 독창성 발굴: 평가대상 작품만이 가진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절대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일이다. 이는 그 작품이 문화적 가치를 갖게 함으로서 한국 실내건축계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된다.

3) 문화적 가치: 문화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내건축의 창의력과 실용성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4.2. 창조적 방향제시로서의 비평

실내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창조적 방향제시의 비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화 및 국제화 전략에 밀려 우리의 전통성과 주체성이 비판적 자세 없이 무차별하게 모방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회성 디자인에서 반영구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비평의 역할이 필요하다.

1) 창조성의 노력: 상업성의 유혹에서 벗어나 반영구성의 창조 작업을 추구할 선도 작업이 필요하다.

2) 전통성/지역성 고려: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의 유도가 필요하다. 실내건축의 비평은 의사 소통의 수단임으로, 실내건축의 역사와 철학

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3) 사회적 인식: 단편적 비평보다는 창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본적 자질에 관한 논의가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종합적 안목: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비평을 하는 사람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4.3. 방향모색을 위한 비평의 틀

올바른 작품의 이해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¹⁴⁾ 해석이란 만인의 사적인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표현을 성실하게 해석함으로써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실내계획의 필수조건은 쾌적한 실내환경, 기능적인 측면, 정서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실내건축은 상업성을 띠고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술적 가치와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창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 주는 내용들을 비평의 골격으로 삼고 분석되길 바란다.

또한, 이해와 평가를 위한 전달매체인 언어로서 작가와 대중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비평가라면 비평은 되도록 작품이 의도하는 방향에 접근해야 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이나 여론을 청취할 필요성도 있다. 이는 바로 올바른 해석과 전달매체인 언어를 통해 비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내건축작품을 체계적으로 비평하기 위한 평가의 틀을 제안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비평의 틀

비평항목	세부내용
용도와 기능적 해석	· 작품에 따른 용도와 기능의 적합한 해결 · 시대적 감각의 해석 · 전통적/지역성 고려 여부
디자인적 해석	· 기능에 적합한 공간구성의 합리성 · 예술적 가치와 조형성 · 색체계획과 재료의 질감의 적절 여부
Vision	· 기대되는 효과 · 디자인의 새로운 지표설정
종합적 해석	· 토털 디자인 개념의 해석 · 공간연출을 위한 기술적 대응 · 공간의 쾌적성

14) 박래경, 앞의 책, 해석과 방법의 문제, p.22.

5. 결론

실내건축 비평은 기존의 건축 비평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성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에 비해 단시간에 사라지는 실내공간에 대한 비평은, 그러므로 다큐멘터리식, 즉 공간자체험자의 보다 깊이있는 공간의 언어적 해석이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실내건축이 갖는 일종의 특수성이라고 볼수 있다.

실내건축에 있어서 비평은 작품이 의도하는 방향에 접근하면서 작가와 사용자(대중)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실내건축의 근본개념을 바탕으로 시대적 감각이나 조류에 적합한 작품인지를 해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질을 높이고 vision을 제시하는데 비평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내건축의 비평적 해석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해석이어야 한다. 또한 비평의 내용은 기본 틀을 가지고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가의 입장접근을 위해서는 비평가는 가급적이면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축적된 작가가 좋겠고,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론적 무장 또한 비평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실내건축계의 비평적 상황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계의 보다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평을 하나의 학문적 장르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비평적 방향모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비평의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가치평가를 위한 과제: 가치평가(Value Evaluation)는 작품의 미적 가치 즉,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이거나 미적인 것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올바른 비평이 가능한데, 이 방법의 기초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비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앞으로의 과제이다.

2) 창조적 방향제시를 위한 과제: 비평하려는 작품의 해석과 가치판단에만 국한하지 말고 새로운 창의성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작가의 창의성과 앞으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평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평이 제시해야할 역할이 부족한 것도 과제의 하나이다.

3) 문명진단으로서의 과제: 예술의 여러 분야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가 문화로서의 가치라고 전제한다면 실내건축분야에서도 예술의 문화적 가치를 진보시켜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차적인 책임이 비평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내건축에 있어서도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되도록 비평이 뒷받침 해주는 과제가 있겠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작품의 해석과 그 표현매체가 되는

디자인 언어를 작품이 의도한 방향과 객관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평의 책임은 실내건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대 사회적 선도를 위해 필요하며, 실내건축계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건축과의 특수성, 예를 들어 결론의 앞부분에 명기한 시간성 등의 특화되는 점을 찾아내어 실내건축 나름대로의 의미와 비평의 방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균형 나간다면 실내건축 디자이너들의 발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실내건축계의 올바른 비평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앞으로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모색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2001.
2. 오인옥, 실내계획론, 기문당, 1993.
3. 김주연·이성훈·서수경, 실내건축, 발언사, 1999.
4. 홍가이 평론집, 현대미술·문화비평, 미진사, 1992.
5. 임두빈, 미술비평이란 무엇인가?/서문과, 1996.
6.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86.
7.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 열화당, 1980.
8. 건축개론편집회편, 건축개론, 기문당, 1991.
9.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1998.
10. 김민수, 21세기 디자인문화 탐사, 솔, 2000.
11. 김봉렬, 한국건축 비평계의 흐름, 건축, 1990.
12. Kurtich & Eakin, Interior Architecture, Van Nostrand & Reinhold 1993.
13. Notes on Interior Design, Information Design Inc.

<접수 : 2001. 10. 31>